

좋은 논문 글쓰기

Eun Seong Hwang*

Department of Life Scienc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Corresponding author: eeshwang@uos.ac.kr

논문이란 무엇인가? 물론 학위논문(degree dissertation)과 학술지논문(research article)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발견을 주장하되 그 내용은 동료학자들에게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과학 논문은 기본적으로 독창적이면서도 신뢰성을 갖춘 내용이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완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담긴 내용이 크건 작건 관계없이 논문에는 이들 기본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 요소들은 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음을 먹는다고 갖추어지고 발휘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하는 평상시에 수련해서 체득되어야만 글을 쓸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라서, 과학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서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기본 자질이 바로 이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작 글쓰기에 들어가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정확한 문제제기, 결과의 정확한 제시와 충실한 분석을 통한 명확한 주장 제기, 나아가서, 결과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충실한 고찰들이 잘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논문을 쓰다보면 문법적인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앞뒤 문장의 전개도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며, 그래서,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서 종종 남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유혹이 빠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주장을 해야 할 때, 증거나 보충자료를 제대로 동원하지 못해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며, 증거를 제시하면서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또는, 다른 이의 결과와 자신의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거리 얘기하기도 하고, 결과의 해석을 충실히 못하거나, 너무 비약해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자기고유의 글 쓰기와 논리적인 글쓰기는 둘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는 모두 쉽지 않은 일이 되어왔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와 과학적으로 글쓰기의 연습이 어릴 때부터 되어오지 않았고 대학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좋은 논문의 요건과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세들을 제안하고, 우리가 쉽게 행하는 오류들을 짚어보며,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빨리 극복하고 좋은 논문들을 쓸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고, 끝으로 논문 작성과 관련한 윤리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함께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점들을 토론하고자 한다.